내겐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갈6:11~15)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겐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게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 내겐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무력함! 내게는 있어요, 무력함이 나의 특징인데 하나님께는 무력함이라는 게 없으십니다.
악함!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실 뿐입니다, 악함은 나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상 본성상 죄나 무력함이나 악함은 없는 게 맞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혀 본성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끌어 당기셨음을 말합니다.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악함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본성상 악함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악함을 끌어 당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만큼 악한 것처럼 보이시게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상 없는 죄와 무력함과 악함 같은 것들이, 구원을 위해 이루시는 경륜상 하나님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겐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는 것, 긍정적인 면에서 없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게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관계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을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동물과 다르게 식물과도 다르게 인격성을 불어 넣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없는 하나님을, 나는 있게 하시고 나는 갖게 하시려고, 내게 인격성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 인격적인 분을 내가 관계하면서 갖고, 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격성이 부여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내가 갖는 것이, 필연적이거나 아니면 기계적이거나,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하나님이 가져진다든지, 이거 뭐 주술이고 주문 아닙니까?
이렇게 주문, 주술, 기계적,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갖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이 하나님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이것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온전히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으로써, '하나님을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는데,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원하는 승진이 안돼서, 또 뭐 군인 아저씨들 같으면 원하는 만큼 진급이 안돼서, 아예 직장이 없으면서 또 2014년이 시작이 됩니까?
또 나이 많은 노총각 노처녀들은 그 원하는 결혼을 아직도 못한 채 2014년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교인 100명만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70~80명이에요, 아니면 30~40명이에요,

아니면 10명을 못 넘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에서 우울한 상태로 2014년을 시작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우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만 가지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좀 믿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울해 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일 마음대로 안 된 것, 다~ 제쳐놓고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갖는데 주력해서 2014년을 하나님 갖고 출발해서 하나님 가진 상태에서 끝냅시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가진 분으로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끝을 내는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못 가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선택하면서 갖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질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것이 곧 갖는 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려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예를 들어, 시집가기 위해서 갑군과 병군을 선을 봤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갑 을 병 중에서.
또 스마트폰을 사는데, 삼성을 사느냐 LG를 사느냐,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을 사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하면, 세상의 돈이 좋잖아요? 근데 그 돈의 좋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Attract하지를 못해, 잡아끌지를 못해.
왜냐하면 돈의 마력 돈의 좋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돈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던 내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좋음도 죽어버렸고, 돈을 좋아하는 내 마음의 습관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거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
이게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체감온도라 그러잖아요? 온도계의 온도와 체감온도가 달라요.
우리 체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꿀단지에요, 꿀단지.
왜 꿀단지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맛있고 좋은 돈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지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또, 주변 몇 사람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쁘잖아요.
아! 김 집사님 진짜 대단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런 게 인기 아니고 명예 아닙니까?
그리고 수위아저씨만 돼도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해요, 경비아저씨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만만치 않은 꿀이에요, 다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의 그 기쁨.
또 나아가 언제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어요.
인류의 문명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문명, 야~! 어떻게 피라미드를 만들었지? 굉장하다.
바벨론 문명, 황하문명 어떻게 채 륜 같은 사람은 종이를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었을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한글을 만들어냈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이라는 단지 안에 담겨 있는 꿀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긍심을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쾌감을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단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꿀들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만족과 성취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갖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위의 차원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행위 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 새로 살면서 이것부터 해결해놓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갖고.
아니, 하나님에게도 없는 하나님을 나에게 갖도록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갖지 않고 자꾸 없는 돈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에요? 되지 않는 승진을 자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지라고 주신 하나님은 가질 생각 안하고
하나님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원할 게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원할 게 없다고 믿을 때, 그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고향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왕들이 탐내는 아내, 아니! 왕이면 여자들이 그 주변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마음대로 원할 수 있는 왕이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기를 해 버립니다.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 내 분신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이삭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삭을 포기해 버립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 세상, 정말 꿀단지에요.
그런데, 이 꿀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진력나게 하고, 에이~ 뭔 말이야? 진력날 정도로 돈이나 벌어봤으면 좋겠다!
믿읍시다. 그거 벌어봐야 알아요? 뭐 된장인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거지.
돈 벌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는 아무소용 없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른다, 육체를 꾸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를 따른다.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선택합니까? 마음이 육체에 딱 달라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만나는 모든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규정해 놓은 것들을 쫓아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체를 따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없는 하나님을 가지라고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떡하느냐?
세상을 선택해 가지고, 세상이라는 꿀단지의 꿀을 찍어먹고 싶은데 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에 승진 못했다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선택한 거예요, 기쁘기 위해서.
자식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선택한 겁니다, 기쁘기 위해서.
그래놓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효화 시키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손, 내 손이 짧으니까 하나님의 긴 손을 빌려 가지고, 자식 대학도 들어가게 하고, 사업도 잘되게 하고, 승진도 하기를 원했다.
이게 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 복음과는 상관도 없고 믿음도 아니고.
목회의 숫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믿음이 없는 목사에요,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것과 대비시켜 가지고 15절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해하면, 승진도 승진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2013년도를 적자로 끝내도 아무것도 아니고, 흑자로 끝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단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내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행복을 위해서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행복하다는 얘기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았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으로 담지요.
마음에 담은 걸 손으로 잡기 위해서 뛰지요, 행동합니다.
그 행동하는 과정 중에 율법주의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져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갖게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손으로 만지듯이 느끼게 해 주시고, 내 손에 쥔 현찰처럼 내가 실감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의 새로 지으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육체가 놓여 있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 마음이 붙어 가지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의해 자극되고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 육체에 마음이 붙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들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풍랑, 나라의 풍랑, 내 건강의 풍랑 다~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잠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기운에 쌓여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그를 감싸고, 찬양하면서 있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대통령 돼도 아무 것도 아니고, 노숙자 돼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겨집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영어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 영어공부가 다르다 이거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면 이게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되면 교만해져서,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고, 안되면 안 된대서 절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해서 영어공부를 시키신다. 그때 영어공부해요.
피아노를 시키신다, 피아노 치세요, 그때.
그때 사업을 하게 하신다, 사업 하세요.
이래서 나온 말이 17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3년 뒤에 나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몸을 가져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 몸에 흔적이 남아요.
그게 박해를 받으면서 상처로 남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삶의 흔적으로 남든지, 내 인생 전체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더라 이거에요, 하나님을 가졌더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내 몸을 이용해서 내 몸을 가지심으로 살게 되시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떻게 선택해요?
십자가에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꿀단지 세상, 세상이라는 꿀단지에 대해서 죽고, 하늘 꿀단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가져버렸네?
내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에서 당신의 뜻을 해나가시더라 이 겁니다.

그러니 내 몸과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흔적이 남게 되더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느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다, 하나님을 가진 자다, 내가 어떻게 가졌는지 아냐? 십자가에서 보이는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가져지더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임을 너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몸을 갖고 너희 인생을 살면서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그런 삶을 갈라디아교인들이여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갖는 일에 주력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몸을 갖고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 갖고 내 인생의 만족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매일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